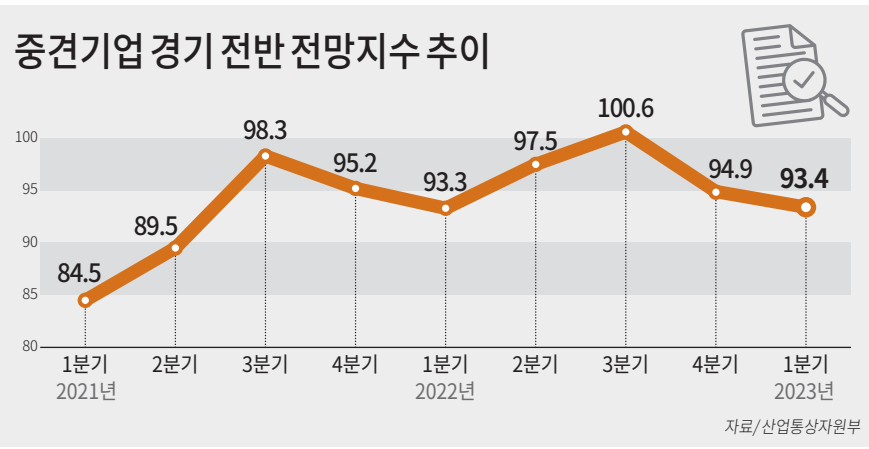


# 중견기업, 1분기 경기전망 ‘암울’... 원자재 가격 상승 탓

산업부, 중견기업 620곳 경기 전망 1분기 전망지수 93.4... 1.5p 하락 수출 96.7... 직전 분기와 유사



중견기업들은 올해 1분기 경기 전망에 부정적이었다. 제조업 분야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620곳 대상 경기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올해 1분기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직전 분기(94.9)보다 1.5포인트 하락한 93.4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전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부정적 전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 전망을 보면 제조업이 90.5로 전분기 대비 2.5포인트 하락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업종에서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자동차의 경우 전분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100.7을 기록했다. 친환경차

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등 신차 판매 호조세 등의 영향으로 긍정적이었다.

화학은 79.6으로 전분기 대비 5.0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의 석유화학 공장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풀이된

수출은 직전 분기와 유사한 96.7을 기록했다.

자동차(103.2)로 전 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미래차 수요 증가와 물류난 개선 등으로 100선을 웃돌았다. 화학은 12.1포인트 줄어든 85.5다. 코로나로 중국 제조공장이 폐쇄되는 등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내수(94.9)는 자동차를 제외한 전업종이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중 자동차(105.4)는 반도체 수급난 해소 등으로 직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며 100선을 웃돌았다. 비제조업 중 1차 금속(88.0)은 건설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여전히 100선을 하회했다.

영업지수 전망도 밝지 않았다. 영업이익(93.0)과 자금사정(93.6) 모

두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제조업은 화학(82.4), 비제조업은 운수업(83.8), 부동산(89.2)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낮았다.

특히, 자금사정은 화학(85.0)과 운수업(89.6)이 각각 9.2포인트, 8.9포인트 등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영의 어려움으로 제조업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53.2%)이, 비제조업에서는 내수 부진(43.8%)이 가장 많이 꼽혔다.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계속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수출 지원과 규제 개선,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공공기관 시설·장비 예약, 한 곳서 하세요” 코트라, 中소 수출바우처로 경쟁력 강화

기재부, 원스톱 통합 예약시스템 240개 기관의 4040개 시설 가능



공공기관 통합 예약시스템.

앞으로 일반 국민이 전국 공공기관의 숙박·체육 시설, 회의실 등을 한번에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개방 시설과 대여 장비를 보다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알리오플러스(Ailoplus)’ 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빌려 쓸 수 있다.

예약이 가능한 시설은 회의실·강의실·강당·체육시설·숙박시설·주차장 등 240개 기관의 4040개 시설이다. 기존 2673개에서 대폭 확대됐다.

또 예약시스템을 통해 출연연구기관·국립대병원 등 40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험장비, 생활·육아·레저용품 등 5개 유형 1719개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심장제세동기 등 기기와 빔프로젝트 등 사무·IT용품, 휠체어 등 생활·육아·레저용품, 3D스캐너와 같은 연구·실험장비 등이 해당된다.

예약 절차 시스템도 간편해졌다. 기존 검색 요건이었던 지역, 유형에 요금, 시간, 실내외가 추가돼 쉽게 검색 가능하다. 시설 검색 후 별도 예약창으로 이동해야 했던 것에서 검색창에서

바로 예약하면 되는 방식으로 간소화됐다.

기재부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공공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기대한다”며 “알리오플러스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등 원스톱 통합 예약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사업 참여기업 모집

KOTRA(코트라)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소비재, 서비스,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이다.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준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온라인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받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해외 마케팅, 해외규격인증, 국제

운송, 홍보·광고 등 2411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8000여개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은 올해부터 기업의 해외 진출역량에 맞춰 전주기 수출지원이 가능하도록 진·성장·확장의 3단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기업은 해당하는 업종과 수출 및 매출 규모에 따라 역량단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은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자가 부담하는 해상·항공 운임 등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 수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사업 중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은 이달 중순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태양광 시설, 주거지 100m 내 설치 가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앞으로 태양광 시설은 주거 지역 100m 이내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태양광 시설 확대 보급을 위해 이격 거리 규제를 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 일관된 태양광 시설 이격 거리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 지역에서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 거리를 운영하게

된다. 또, 도로에는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산업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지킨 지자체에는 신재생 보급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동안 태양광 설비 관련 이격 거리 규제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규제 거리도 점차 늘어나면서 시설 사업자들이 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지난해 11월 기준 226개 기

초 지자체 중 129곳에서 일정 거리 이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 거리 규제를 주거 지역과 도로 등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검증제도도 개편한다.

지난 2020년 7월에 도입한 탄소검증 제도는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kW)당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술 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sub>2</sub> /kW로 변경하는 등 전 등급의 배출량을 상향하기로 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 소진공, 성장단계별 프랜차이즈 지원

예비형, 성장형, 상생특화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프랜차이즈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4월 소진공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성장단계별 지원은 ▲프랜차이즈화 계획과 가능성이 있는 유망 소상공인(예비형) ▲스케일업 니즈(needs)가 높은 성장단계의 중소프랜차이즈(성장형) ▲우수한 상생협력 계획이 있는 중소프랜차이즈 가맹본부(상생특화형)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예비형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

고 있는 소상공인(지역점 1년 이상 운영 필수)이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브랜드 디자인 지원,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등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성장형은 가맹점 100개 미만 중소프랜차이즈가 대상이다.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성장지원, 마케팅 지원,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사업비 사용이 가능하다.

상생특화형은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새해에도 그칠 줄 모르는 집회 열기... “간호법 즉각 제정해야” /사진 뉴스스  
▲ 검찰, 강동선 283채 굴린 ‘화곡동 빌라왕’ 구속 기소

▲ 檢, ‘알펜시아 의혹’ 최문순 출국금지...KH 배임 혐의도 수사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검찰 송치...“살인해 죄송, 추가 범행 없다”



▲ 경찰청장, 참사 당일 음주 사실 인정...“휴일이라 술 마신 것” /사진 뉴스스  
▲ “당신 계좌로 돈세탁”...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